현불 논단

디지털 세대차 극복하려면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6세 이준석, 당대표 선출돼
기성정치 불신 · 교체 '표면화'
세대 격차, 디지털서도 확인

디지털 네이티브 MZ세대들
페북 · 인스타 메신저 활용해
장노년층 40% 메신저 안 써
소통 방식의 변화 · 격차 확인

기성세대, 고정관념 내려놓고
MZ세대 가치관 이해 나서야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에서 0선의 36세 청년이 장 · 노년의 중진들을 누르고 제1야당의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정치권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정치인 자격시험제'와 '대변인 공개경쟁 선발제도'와 같은 기성 정치인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이슈를 제기하여 능력과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준석 현상'은 국민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세대교체 요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잠복한 신구 세대 및 이해집단 간 갈등과 격차가 표면화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기성세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를 아우르면서 인간 본연의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길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는 하나의 단초로서 디지털 격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가 아날로그 환경에서 태어나 뒤늦게 디지털 환경을 접하게 된 '디지털 이주민'인 반면,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고 디지털 기기를 신체의 일부처럼 다루며 성장한 세대이다. 마치 원주민이 모국어를 쓰듯 디지털 기기를 다룬다는 의미로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라고 불린다. 이주민의 언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원어민의 모국어 구사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듯이 디지털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는 메우기 힘든 틈새가 존재한다. 여기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항목에서 젊은 세대와 장 · 노년세대 사이의 디지털 격차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 이용에 있어서 디지털 원주민인 젊은 층이 포털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75.8%) 신뢰하는 반면, 장 · 노년층은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90%) 신뢰하고 있다. SNS 이용에 있어서는 젊은 층이 페이스북(71.0%)과 인스타그램(64.1%)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장 · 노년층은 밴드(79.2%) 이용률이 높고, SNS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84.0%)도 높다.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젊은 층(77.6%)과 장노년층(45.7%)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젊은 층(42.7%)과 장노년층(19.2%)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소통 도구로서 메신저 이용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 카카오톡을 높게 이용하고 있지만, 젊은 층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반면 중장년층의 10명 중 4명은 메신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시간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동형-고정형 매체를 오가면서 텔레비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영상 뉴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령층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해보면 젊은 세대와 장 · 노년세대는 이용하는 매체와 SNS가 다르고, 이용하는 소통수단(메신저)에 차이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대를 살아온 장 · 노년세대와 달리 고소득 국가의 시민으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는 가치관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세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성세대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MZ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경청함으로써 그들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기성세대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배워 활용하려는 변화를 선택한다면,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이준석 현상'이 요구하는 젊은 세대와의 공감을 확대하고 세대 간 공존을 통한 공생의 삶을 성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현명한 걸음이 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를 변화시키는 명상 · 기도

우리는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상대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처리를 못해서 답답할 때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그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주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메워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 자기 능력도 신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도움 받은 사람도 깨닫고 훗날 은혜를 갚을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이익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정적인 삶은 의식을 깨우고 몸도 깨웁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열정적인 삶은 건강과 번영, 행복을 부릅니다. 소극적인 생각과 삶은 우울, 슬픔, 괴로움, 불건강 등 불행을 불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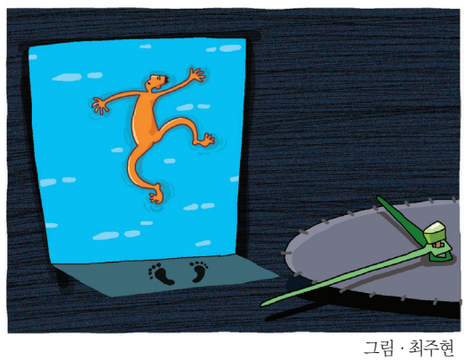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화분에 심은 꽃나무를 하루종일 그늘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햇빛을 쪼여주면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밝은 햇빛은 식물에게 초록색을 주고 그 꽃에게 갖가지 색깔을 주며, 그 열매에 고운 빛과 달콤한 맛을 줍니다.

이처럼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본래 내재되어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꺼내 쓰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일심으로 할 때 무한한 빛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다. 나에게는 모든 장애가 없다. 나의 생명의 원천인 마음 속에 솟아나는 것은 찬란한 기쁨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굳은 신념이 생기고 열정을 낳게 됩니다. 기도로 생긴 열정은 마치 전등을 밝히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인간의 원초적인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신념이 생길 때 룰리베린 황체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혈관 속에 흘러들어 와 인체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명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說

실록 · 의궤 이제 제자리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1913년 조선총독부가 도쿄대로 빼돌렸다. 이 실록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대부분 불에 타 재로 변하고, 외부에 대출된 74책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는 역시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했다. 국권 침탈 기관이 일본왕실 행정기관에 기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후 1965년 이 두 문화재는 한일 환수 문화재 협정 목록서 빠지며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친다.

이들 문화재를 환수 한 것은 2011년 오대산사고가 위치한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환수위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를 원래 위치했던 오대산사고에 위치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 실록과 의궤박물관이 건립되고 현대화된 오대산사고가 자리해 보관과 연구, 장소적정성 등이 충족됐음에도 말이다. 오히려 중앙의 기관보다 최신 시설로 지어지고, 전문 연구 등이 가능한 곳이 오대산실록의궤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시대는 각종 문화재의 지역에서의 활용을 장려하고 문화분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에서의 문화재 집중관리가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권리를 뺏는 결과라는 취지에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오대산사고를 기리는 실록 · 의궤박물관에 위치해야 한다. 일제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반출할 당시 보관과 연구라는 명분을 들었다. 문화 분권 시대 흐름 속에서 정부는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의 중앙관리에 대한 명분이 역시 환수 전 일제가 내걸었던 명분과 다르지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한다.

불교환경연대 20주년에 부쳐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한때 불교환경연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환경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이었다. 2000년대 전국적으로 토지개발이 진행되던 시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관통도로를 저지하고 새만금 · 대운하 ·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종교계 연대활동과 탈핵운동, 빈그릇운동,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은 물론, 생태교육 등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의 존재는 불교의 대사회활동을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체에 다름 없는 셈이다.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원탁토론회 '돌아보고 내다본다'에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아쉬움 섞인 제언들도 이어졌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불교환경연대의 전성기가 수경 스님과 도법 스님 등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특정한 인물에 의존했다는 성찰도 이어졌다. 스님들의 부재 이후 활동이 위축된 이유는 대중 확장성이 미흡했고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에 비추어 불교환경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다양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났다. 불교의 가르침을 대사회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세대교체, 즉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학양성 및 교육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불교환경연대가 일궈온 지난 20년의 성과를 미래 20년으로 이어가기 위해, 뼈아픈 성찰에 기반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